



패션&스타일

직장 새내기 스타일 제안

취업난을 뚫고 원하는 회사에 합격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직장 상사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신입사원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옷차림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인터메조 서광철 매니저는 “옷차림은 사람의 첫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어떤 일을 하든지 신입사원에게는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전해줄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회 초년생인 광주일보 김호 수습기자, (주)광주신세계 양지희씨와 함께 직장 선배들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나만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패션 전략을 살펴봤다.

슬림 정장 세련되면서 튀지않게

심플 실루엣 단정하고 옛지있게

남 키 크고 호리호리한 남성에게만 슬림한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정장보다는 실용적이면서 캐주얼 보다는 격식을 갖춘 옷)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남성도 본인의 체형에 맞게 사이즈를 수선하고 약세사리를 활용하면 슬림한 정장이 어울리는 ‘간지남’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슬림한 정장으로 깔끔하게=블랙, 네이비, 그레이 계열 정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로 어떤 아이템과도 잘 어울린다.

슬림하면서도 은은한 광택이 있는 스타일은 세련되면서도 날렵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슬림한 정장을 구입할 경우 착용감 자체가 타이탄 제품을 선택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통통한 사람은 어깨보다는 배에 맞춰 사이즈를 선택한다. 재킷은 뒷단추를 채웠을 때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어깨에 사이즈를 맞출 경우 재킷의 품이 많이 남아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지는 원래 입던 허리사이즈보다 한 치수 작은 것을 선택한다. 바지통이 넓어보이면 키가 작아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허리와 엉덩이를 살짝 늘리는 수선을 한다면 내 몸에 맞으면서도 슬림한 정장의 멋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타이, 벨트, 구두로 포인트를=맞춤에 보일 수 있는 정장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타이와 벨트, 구두다.

타이는 분홍 등 파스텔 계열의 화사한 색상도 좋지만 최근엔 블루 계열이 인기다. 차분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색상은 정장, 셔츠와 비슷한 계열을 선택하되 셔츠보다는 진한 색깔을 매치하면 된다.

벨트와 구두는 색깔을 맞추는 것이 좋다. 블랙이나 그레이 색상의 정장에는 브라운 계열의 벨트와 구두가 세련돼 보인다. 단, 그레이 색상 정장에 블랙 벨트와 구두는 피하자. 투박하면서도 촌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각각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네이비 색상의 정장에 흰색 벨트와 흰색 스니커즈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애용했던 스카프가 남성복의 포인트 액세서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는 작은 스카프 하나만 잘 매치해도 세련미가 돋보일 수 있다.

작사각형 스카프의 모서리를 맞춰 삼각형으로 접은 다음, 움직일 때 너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목을 한 번 감싼 뒤 끝을 매듭 지으면 된다.

<도움말 : 광주신세계백화점 인터메조 서광철 매니저>

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 여성은 귀여운 느낌에서 벗어나 커리어 우먼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급선무다.

◇심플하고 단정하게=레이스나 리본 등의 장식이 지나치게 많은 옷은 피하고 전체적으로 심플한 실루엣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깔끔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

세트 정장에서 벗어나 재킷에 스커트나 원피스를 매치하고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스커트나 블라우스 중 한가지는 블루, 레드 등의 포인트 컬러를 매치해 화사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좋다.

블랙,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등 기본 컬러로 된 스커트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밝은 색 재킷은 활용도 높으므로 하나쯤 장만해 두는 것도 좋다.

스커트 길이는 무릎이 살짝 드러나거나 가깝게 덮는 길이로 무릎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5cm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여성스러운 A라인이나 H라인을 선택한다. 셔츠는 몸매 라인이 잘 살도록 가슴 절개선과 허리 라인이 제대로 잡혀있는 신축성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 셔츠를 입을 땀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반드시 어깨끈 탑을 입거나 셔츠 색상과 맞춘 속옷을 입어야 한다.

원피스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무릎선 정도 오는 길이의 베이직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추천한다. 컬러는 블랙이나 네이비, 베이지가 좋으며, 깔끔한 벨트나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어도 좋다.

◇단품 아이템이나 액세서리로 화사한 느낌을=니트 카디건은 재킷보다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아이템이다. 셔츠와 스커트, 또는 셔츠와 바지를 입을 때, 여기에 니트 카디건을 입고, 스카프와 같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체적인 의상이 다소 지루해 보인다면 프린트 스카프나 작은 액세서리로 화사한 느낌을 가미하는 것도 좋은데 이때 스카프나 코사주를 함께 매치하거나 귀고리나 목걸이를 활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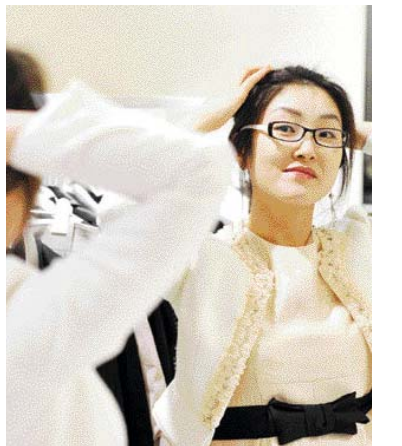
가방과 구두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도록 소재를 통일한다. 구두는 옷차림 컬러를 고려해 선택하되 하이힐이나 앞코가 뾰족한 스타일보다는 앞코가 둥근 굽이 활동하기에 좋다. <도움말 : 광주신세계백화점 여성복 '라인'>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일 광주일보 김호 수습기자가 광주신세계백화점 인터메조 매장에서 신입사원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올 봄에도 남성복은 슬림한 정장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주)광주신세계에 입사한 양지희씨는 여성복 라인 매장에서 서비스업종에 필요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for Tiger Brand Tiger Balm. Features a tiger illustration and text: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방수제', '방수제', '방수제'.

Advertisement for a service or product. Features text: '참하원 구조물 특권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2', '3', '방수제'.